

# ‘용병’ 홀튼 2이닝 무실점 쾌투…선발 낙점



김여을 기자

KIA 전훈캠프 오키나와를 가다

KIA 마운드의 퍼즐이 맞춰져가고 있다.

마운드의 새얼굴 데니스 홀튼은 24일 고친다 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연습경기에서 출격해 2이닝을 소화했다.

선발로 나온 홀튼은 첫 타자 정근우에게 2루타를 허용했지만 신인 박준혁을 상대로 삼진을 뽑아낸 뒤 김회성과 김태균을 각각 중견수 플라이와 유격수 땅볼로 잡아냈다.

2회에도 이양기·정현석을 유격수 땅볼로 둘러서운 홀튼은 정범모를 1루수 파울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첫 실전 피칭을 마무리했다.

2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 7명의 타자를 상대하며 23개의 공을 던졌다. 스피드는 직구 136~141km, 슬라이더 124~126km, 커브 114~122km를 기록했다. 비장의 무기인 체인지업은 구사하지 않았다.

홀튼은 “차일드의 리드가 좋아서 쉽게 공을 던졌다. 만족한다. 투구 벨린스와 스트라이크 단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피칭을 했다. 현재 70% 정도 몸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누구보다 유심히 홀튼을 지켜본 한

한화와 연습경기

김주형·이대형 홈런포

기분 좋은 9-1 승리

선발·마무리 투수 윤곽  
불펜은 여전히 ‘오리무중’

화 타자들도 “커브는 카운트 짙는 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마다 공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타집이 높아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23일 서재웅에 이어 홀튼까지 실전 피칭에 나오면서 KIA 마운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KIA의 마운드는 4선발까지 자리가 채워져 있다. 가장 안정적으로 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양현종을 필두로 김진우·송은범 그리고 홀튼이 선발 자리를 나눠해둔 상황이다. 김진우가 한 템포 박사를 능숙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고 커디션이 많이 떨어졌던 송은범은 23일 SK전에서 3이닝을 소화하면서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마지막 남은 한 자리는 서재웅, 박



KIA의 새 외국인 선수 데니스 홀튼이 24일 고친다 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KIA는 이날 김주형의 만루홈런과 이대형의 솔로홈런에 힘입어 9-1로 승리를 거뒀다.

/日 오키나와=김여을기자 wool@

경태, 임준섭의 각축전이다. 서재웅과 박경태는 23일 나란히 출격해 몸을 풀었다. 서재웅에게는 이번 캠프의 첫 출격. 2이닝 동안 30개의 공을 던지며 다양한 구종을 시험했고 결과도 1피안타 무실점으로 괜찮았다. 좌완 박경태와 임준섭의 대결에서는 스피드와 구위에서 박경태가 한발 앞서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캠프에서 고민을 하게 했던 마무리 자리는 어센시오로 채워놓은 것이다. 마지막 남은 한 자리는 서재웅, 박

만큼 문제는 역시 하리다. 선동열 감독도 “시즌을 풀어갈 열쇠고리는 중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고민이다. 유통

윤이 무릎 부상으로 빠지면서 든든한

베�테랑이 없다. KIA 선수가 된 김태

영도 솔슬 불펜 피칭을 하고 있는 정도다. 그러나 선 감독이 많이 향상된 선수로 꿈을 선수는 좌완 심동섭과

리 지원으로는 박준표와 신인 김지훈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계산을 해보면 광주체육부상이 크게 느껴진다. 박성호도 캠프 중간 어깨가 좋지 않아 24일 경기에서 모처럼 시험 기동을 하는 등 뛰어하게 불편한 나머지 고민하고 있다.

KIA는 25일 니혼햄전과 28일 히로시마 그리고 1일 LG와의 연습경기를 통해 마운드 큰 틀을 완성할 계획이다.

wool@kwangju.co.kr

## 볼보이 선동렬·대주자 서재웅 ‘소통 KIA’

감독이 평고 치고 볼 줍고

최신가요 들으며 훈련 즐겨

KIA의 캠프에 소통의 바람이 분다. 지난해 1위 행진을 하던 KIA는 끝없는 추락과 함께 8위라는 아찔한 성적을 냈다. 이 과정에서 ‘소통’이 도마에 올랐다. 소통 부재가 추락을 부채질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소통은 올 시즌 KIA의 가장 큰 숙제가 됐다.

막바지로 향해가는 캠프 분위기에서 KIA에 던져진 숙제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확인할 수 있다. 경기장에 올려놓는 최신가요가 캠프가 잘 풀려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단서다.

누구보다 팀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베테랑 서재웅은 선수단 분위기를 물

는 질문에 “음악 흘러나오고 있잖아요”라며 그리운드를 가리켰다. 훈련을 할 때 KIA가 안방으로 쓰고 있는 친구장에는 음악소리가 울려퍼진다. 90년대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아이돌 그룹의 최신곡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방송실 마이크에 대고 각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음악을 돌아가면서 트는 것이다.

서재웅과 송은범도 분위기 메이커다. 투수들의 견제훈련에 대주자 역할을 차지하는 서재웅, 후배들을 불잡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 어렵겠냐?”며 조언을 해주는 송은범의 모습에서 밝아진 선수단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선동열 감독의 작지만 큰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직접 평고를 치고 공을 줍는 감독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선수들에게 슬쩍 농담도 던지는 등 카리스마 대신 소통을 선



24일 일본 오키나와 고진다구장에서 열린 한화와 연습경기에 앞서 KIA 티이거즈 선동열 감독이 평고 훈련 중 직접 볼을 주으며 선수들의 훈련을 돋고 있다.

택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변화가 생겼다.

KIA는 25일 니혼햄전과 28일 히로

시마 그리고 1일 LG와의 연습경기를 통해 마운드 큰 틀을 완성할 계획이다.

wool@kwangju.co.kr

## ‘볼링 기대주’ 이영승 태극마크

〈전남조리과학고〉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



한국 여자볼링의 차세대 기대주 이영승(여·전남조리과학고 3년·한국체육대 진학·사진)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24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이영승은 최근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여자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영승은 1, 2차 평가전에서 기술평가·내용평가 합산 결과, 총 204개점 합계 종합 7위에 올라 국가대표가 됐다. 국가대표는 8위까지 주어지며, 여자 고등부 선수로는 이영승이 유일하다.

청소년대표를 지낸 이영승은 지난해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4개(개인전, 3인조, 5인조, 마스터즈)와 동메달 1개(2인조전)를 수확했다. 이영승의 활약으로 전남 여고부 볼링은 전국체육대회에 걸린 5개 전 종별을 독식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한편, 광양시청의 최복우·박종우·류지훈도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부 최종 대표로 선발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월곡초·광덕중 전국 축구대회 ‘동’

군산서 열린 금석배

광주 월곡초와 광덕중이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에서 나란히 준결승에서 경기 이천남초에게 1골을 내줘 아쉽게 동매달을 목에 걸었다.

광덕중(감독 김성구)도 이날 군산 월명중합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고창북중과의 준결승 경기에서 0대1로 패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전호문 목포대 교수 체육진흥공단 이사 임명

전호문(50·사진) 목포대 체육학과 교수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 이사로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교수를 비롯해 김은희(54·신흥대 생활체육과 교수), 원형종(54·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교수), 김경호(49·경향신문체육부 선임기자), 이윤남(39·법무법인 윤율 변호사 등 5명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 이사로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는 체육, 법조,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전문가다.

이들은 앞으로 공단 운영을 위한 이사회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임무를 맡는다. 임기는 2년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페 광주한빛산악회 010 3131 3580

▲‘빛고을무지개산악회’ 3월16(일) 임실 옥정호길, 07 : 00 엄주체육관, 07 : 20 학동중·심사입구지하철역 3번출구, 07 : 35 광주역, 07 : 45 문예회관후문, 07 : 55 동광주체육부 010 3620 2002

▲광주청룡산악회 3월12(일) 수원 구례계산, 07 : 00 배운동로터리, 08 : 00 교원공제회관, 08 : 10 문예회관 후문, 08 : 20 시청정문, 06 : 20 무등산한솔 경유※ 다음카페 광주산울림산악회 010 4650 2550

▲광주가이복신악회 3월9일(일) 진주 괘제산, 진주죽성루 08 : 00 무등경기장, 08 : 20 문화예술회관 후문,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30 010 9866 5014

▲광주청룡산악회 3월5일(수) 경남 하동구 자봉, 07 : 50 배운동로터리, 08 : 00 교원공제회관, 08 : 10 문예회관 후문, 08 : 20 시청정문, 06 : 20 무등산한솔 경유※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010 3602 7882, 016 655 3006

▲광주청원산악회 3월9일(일) 남해 대방산, 08 : 00 광주역 앞 출발(나라관광)※ 다음카페 광주청원산악회 010 6294 2678

▲광주청원산악회 3월15(토) 충북 음성백마산, 주원정성 08 : 00 문예회관, 08 : 20 문예회관 후문,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45 011 646 3450, 011 259 0284

▲광주청원산악회 3월19(금) 전북 정동진, 08 : 00 문예회관,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45 011 646 3450, 011 259 0284

▲광주청원산악회 3월21(일) 전북 정동진, 08 : 00 문예회관,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45 011 646 3450, 011 259 0284

▲광주청원산악회 3월21(일) 전북 정동진, 08 : 00 문예회관,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45 011 646 3450, 011 259 0284

▲광주청원산악회 3월21(일) 전북 정동진, 08 : 00 문예회관,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45 011 646 3450, 011 259 0284

▲광주청원산악회 3월21(일) 전북 정동진, 08 : 00 문예회관,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45 011 646 3450, 011 259 0284

▲광주청원산악회 3월21(일) 전북 정동진, 08 : 00 문예회관,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45 011 646 3450, 011 259 0284

▲광주청원산악회 3월21(일) 전북 정동진, 08 : 00 문예회관,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45 011 646 3450, 011 259 0284

▲광주청원산악회 3월21(일) 전북 정동진, 08 : 00 문예회관,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45 011 646 3450, 011 259 0284

▲광주청원산악회 3월21(일) 전북 정동진, 08 : 00 문예회관,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45 011 646 3450, 011 259 0284

▲광주청원산악회 3월21(일) 전북 정동진, 08 : 00 문예회관,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45 011 646 3450, 011 259 0284

▲광주청원산악회 3월21(일) 전북 정동진, 08 : 00 문예회관,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45 011 646 3450, 011 259 0284

▲광주청원산악회 3월21(일) 전북 정동진, 08 : 00 문예회관,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45 011 646 3450, 011 259 0284

▲광주청원산악회 3월21(일) 전북 정동진, 08 : 00 문예회관,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45 011 646 3450, 011 259 0284

▲광주청원산악회 3월21(일) 전북 정동진, 08 : 00 문예회관,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45 011 646 3450, 011 259 0284

▲광주청원산악회 3월21(일) 전북 정동진, 08 : 00 문예회관,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45 011 646 3450, 011 259 0284

▲광주청원산악회 3월21(일) 전북 정동진, 08 : 00 문예회관,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45 011 646 3450, 011 259 0284

▲광주청원산악회 3월21(일) 전북 정동진, 08 : 00 문예회관, 08 : 30 비엔날레주차장 07 : 4